

자연이 선물한 행복한 일상 탁영아

피아니스트 탁영아는 뉴욕 주립대 팻츠담 음대 교수로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연주와 교육 등 바쁜 일로 가득한 그녀의 삶에 잠시나마 여유를 풀어놓는 것은 가까운 여행으로 접할 수 있는 나무와 호수, 그리고 바다와 같은 자연이다. 시간을 내어 찾는 아름다운 자연에서의 산책으로 영감을 얻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탁영아. 그녀가 자신의 힐링 이야기를 전해왔다.



뉴욕 팻츠담의 Raquette 강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가을의 뉴욕 주립대 Crane 음대



하얀 눈으로 덮인 뉴욕 주립대의 겨울

최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근황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최근 몇 달간은 학교 일들로, 또 여러 연주들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제가 근무하는 뉴욕 주립대 팻츠담 음대(Crane School of Music a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Pottersdam)의 피아노과 과장직을 맡게 되어서 조금 더 일이 늘어났어요. 시간이 갈수록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 정신적인 그 모든 균형들을 말이죠. 지금 이 인터뷰 답변을 쓰고 있는 곳은 플로리다인데요, 제가 상주음악가로 활동 중인 이곳 사우스이스턴 대학에서 이번 주(11월 셋째 주)에 티칭과 연주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이 끝나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편인가요.

예전에는 여가 시간이 나면 뭔가를 꼭 만들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 자체도 뭔가 숙제처럼 느껴지곤 했는데, 요즘은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곤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생활 속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잠시나마 그런 여유를 통해 저를 돌아보는 것은 음악에도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도 얻게 됩니다. 연주나 교육 등의 일로 다른 곳을 여행하며 가지는 시간도 소중해요. 저는 2016년부터 뉴욕 주립대 팻츠담에서 가르치면서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업스테이트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곳이지요. 연습이나 티칭으로 긴 하루하루, 한 주를 보내고 머리를 좀 식히고 싶을 때나 티칭과 연주 여행 후 피곤할 때, 일부러 시간을 내어 그런 곳을 산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나뭇잎의 각기 다른 느낌들, 나무 모양들 하나하나가 조금씩 더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렇게 계절마다 다른 형형색색의 느낌은 제게 음악적 영감을 주기도 해요. 덕분에 이런 자연의 작은 변화로 인해 제가 느끼는 감정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시간 정도 가면 예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Lake Placid와 같이 잘 알려진 멋진 곳도 있답니다.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들려주세요.

제 고향이 부산이라 어릴 적부터 바다 가까이에 살았어요. 그래서 바다를 접하는 게 일상이었고, 제일 처음 말한 단어도 바다였다고 해요(웃음). 어릴 적부터 산, 특히 바다를 가까이했기 때문에 지금도 뭔가 답답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제일 먼저 바다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방문한 밴프, 아스펜, 이탈리아 Positano 등의 페스티벌들에서 연주했을 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도 제겐 참 소중한 기억이에요.

자주 찾게 되거나 선생님께 영감을 주는 장소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몇 년 전 미국 서부 쪽에 있는 Lake Tahoe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호수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정말 인상 깊었죠. 물의 깊이, 뭔가 살아있는 듯한 에메랄드 빛깔의 호수, 골짜기와 숲, 하늘과 맞닿는 오묘한 조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색깔과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방문했을 때는 연주를 앞두고 있어서 근처 교회를 찾아가 연습을 했는데, 연습하러 가는 도중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호수를 바라보고 또 사진에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마침

교회에서도 호수가 보였는데 그 경치를 바라보며 연습하던 일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작년에는 Grand Canyon을 방문했는데 그 절경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자주 생각나고 방문하고 싶은 곳은 아무래도 제 마음이 항상 향하는 바다인 것 같네요. 바다에 가면 어린 시절의 기억들, 뭔가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시원함과 그 거대한 앞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외로움이 공존하는 느낌을 받곤 해요. 바다는 제 마음 속의 세세한 감정들을 더 생생히 살아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더욱 느끼는 것은 바쁜 일상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있을 수 있을 때가 참 행복하고 그래서 연습시간 자체가 또한 힐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중 뉴욕이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제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약간은 차가운 공기와 무엇보다 아름답고 다양한 색깔들로 물든 단풍들,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뭔가 쓸쓸하지만 운치 있는 풍경들 때문이에요. 겨울은 정말 춤지만 눈이 내리는 광경이 나름대로 참 예뻐요.

선생님께서 자연이 주는 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숙연함과 겸손함이 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스님의 <잠언집>을 평소 가까이 두고 종종 읽는 편인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산은 곧 커다란 생명체요, 시들지 않는 영원한 품속이다. 산에는 꽃이 피고 꽃이 지는 일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사상이 있고, 종교가 있다.” 음악을 하면서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듯, 자연에는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무한합니다. 그런 자연이 옆에 있고 광활한 자연 안에 한 생명체로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오는 2019년 앨범 발매를 예정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소개해주세요.

네, 베토벤 작품을 담은 앨범이고 스타인웨이(Steinway & Sons) 레이블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베토벤의 <론도 C장조>와 소나타 세곡(<Op.10-2, Op.31-3, Op.57>)이 실릴 예정인데, 2019년 1월에 뉴욕에서 마지막으로 녹음이 완성됩니다. 세 소나타 모두 제게 의미 있는 곡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가는 앨범입니다. 녹음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제겐 참 소중합니다. 내년 1월에 녹음을 끝내고 나면 2~5월 사이 봄에 뉴욕, 필라델피아, 플로리다 등에서 독주회를 비롯한 실내악 연주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연말 메시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선생님의 연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지요.

<피아노음악> 독자 여러분, 올 한해에도 기억에 남을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년 여름 성남 티엘아이아트센터의 초청으로 독주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다양한 연주와 기회들을 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글·김소연 기자